

‘천국의 해(*The Sun in Heaven*)’

※ 주석에 나오는 괄호 안 숫자들, 가령, ‘AC.1053, 3636...’ 같은 숫자들은 ‘*Arcana Coelestia*’라고, 스베덴보리가 쓴, 총 10,837개의 글로 된 창세기, 출애굽기 주석의 글 번호를 가리킵니다.

시작합니다.

천국의 해

The Sun in Heaven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사30:26)

지난주, 스베덴보리 저, ‘천국과 지옥’(*Heaven and Its Wonders and Hell*) 13장, ‘천국과 지상 만물 간에도 일종의 상응(相應)이 있다’(*There Is a Correspondence of Heaven with All Things of the Earth*)에 이어 오늘은 14장, ‘천국의 해’(*The Sun in Heaven*)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우리를 환히 비추셔서 이 아케이나(*arcana*, 秘義)가 밝히 이해되도록,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육(靈肉)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글 머리에 참고 표시(‘※’)가 있으면 주석이거나 역자가 보탠 설명입니다.

116 천국에서는 이 세상 해(*the sun of the world*)도,

해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그 이유는 이것들이 모두 백 퍼센트 자연적이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연(自然, *nature*)은 그 기원이 해이며, 그래서 해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모든 걸 가리켜 자연적(*natural*)이라 합니다. 그러나 영계는, 천국은 여기에 속하는데, 자연을 초월, 자연적인 것과는 전혀 다르며, 상응들이 아니면 이 둘 사이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둘 사이 차이에 대해서는 앞서 38번 글, ‘단계’(*degrees*)에 대해 말씀드린 걸 보시면 이해하시지 싶고, 둘 사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앞 두 장에서 다룬 ‘상응’(*correspondences*)에 대해 말씀드린 걸 보시면 됩니다.

※ 38번 글은 5장, ‘세 천국이 있다’

사30:26, HH.116-125

‘천국의 해(*The Sun in Heaven*)’

(29-40)에 속한 글로, ‘단계’ 자체를 설명하고 있다면, 39번 글은 이 단계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천사 내면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아케이나가 하나 소개되고 있어 여기 다시 인용합니다.

...모든 천사와 또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내적이거나 가장 높은 단계 내지는 그 무엇(*an inmost or highest degree, or an inmost or highest something*)이 있으며, 이곳으로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이 가장 먼저, 가장 내밀하게 유입되고, 거기서부터 단계적 순서를 따라 그의 다른 내면들이 배열됩니다. 이 가장 내적인, 가장 높은 단계를 가리켜 주님이 천사 또는 사람에게 들어가시는 문(*the entrance of the Lord*)이라 하며, 그 안에 거하시는데는 주님만의 처소(*his veriest dwelling place*)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바로 이 가장 내적인, 가장 높은 단계가 있기 때문이며, 이것 때문에 사람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이 단계가 없기 때문인데, 이 단계로 인해 동물과 달리 사람은 주님에 의해 마음과 의식(*mind and disposition*)의 내면이 주께로 고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주님을 믿을 수가 있

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화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성과 지혜를 받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도 이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내밀한 곳에 주께서 무엇을 갖추어 두셨고, 공급하시는지는 그 어떤 천사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천사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117 이 세상 해뿐 아니라 해로 말미암는 그 어떤 것도 천국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곳 천국에도 어떤 해가 있어 빛과 열 및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외 다른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근원이 다를 뿐인데, 천국에 있는 것들은 영적이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자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해는 주님이십니다. 그곳 빛은 신적 진리(神, *the Divine truth*)요, 열은 해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적 선(善, *the Divine good*)입니다. 이 근원으로부터 천국들 안에 생겨나고 보이는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천국에 있는 이 빛과 열, 그리고 그로 인해 존재하는 것들은 이어지는 장들에서 다루고, 본 장에서는 그곳의 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의 해(*The Sun in Heaven*)’

니다. 천국에서 주님은 해로 보이십니다. 주님은 신적 사랑(*Divine love*)이시기 때문인데,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 해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영계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이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이 사랑이 해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118 천국에서 주님이 실제로 해로 보이심을 저는 천사들에게 그저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볼 수 있도록 가끔 허락받았고, 이런 연유로 저는 해로 계신 주님에 관해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몇 말씀 기꺼이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해로 보이시지만 그러나 천국 안이 아니고, 천국들 위 높이, 그러니까 머리 위 수직이 아닌, 천사들의 얼굴들 앞 중간 높이에 계십니다. 그분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두 곳에서 보이시는데 한 곳은 오른눈 앞이고, 다른 한 곳은 왼눈 앞입니다. 오른눈 앞에서 주님은 그 밝기와 크기가 마치 이 세상 해처럼 똑같이 보이시지만, 왼눈 앞에서는 해가 아닌 달로 보이십니다. 이 경우, 그 크기도 밝기도 지상의 달과 같지만 그 눈부심은 더한, 마치 그 하나하나가 하얗게 보석처럼 빛나는, 많은 작은 달들로 둘러싸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두 곳에서

아주 다르게 보이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저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퀄리티(어떠함, 내적 역량, *the quality of his reception of the Lord*)에 따라 주님을 보기 때문이며,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사랑의 선(*the good of love*)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주님을 신앙의 선(*the good of faith*)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식으로 보이십니다. 주님을 사랑의 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만큼 주님을 해로, 화염에 휩싸여 활활 타오르는 해로 보며, 이들은 주님의 천적 나라(*his celestial kingdom*)에 있습니다. 반면, 주님을 신앙의 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들 역시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만큼 이번에는 주님을 달로, 하얗게 보석처럼 빛나는 달로 보며, 이들은 주님의 영적 나라(*his spiritual kingdom*)에 있습니다.⁸⁷

※ 87. 주님은 천국에서 해로 보이시며, 주님은 천국의 해 (AC.1053, 3636, 3643, 4060) 주님은 주님 사랑의 나라(*where love to Him reigns*)인 주님의 천적 나라 사람들에게는 해로, 체어리티와 신앙의 나라(*where charity to the neighbor and faith reign*)인 주님의 영적 나라 사람들에게는 달로 보이심 (AC.1521,

사30:26, HH.116-125
'천국의 해(*The Sun in Heaven*)'

1529 - 1531, 1837, 4696) 주님은 오른눈 앞에서는 중간 높이의 해로, 왼눈 앞에서는 달로 보이심 (AC.1053, 1521, 1529 - 1531, 3636, 3643, 4321, 5097, 7078, 7083, 7173, 7270, 8812, 10809) 주님은 해와 달로 보이심 (AC.1531, 7173) 주님의 신성 그 자체는 천국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을 크게 초월하심 (AC.7270, 8760)

※ 맨 마지막 주석 관련...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은 천사들을 포함, 그 어떤 살아있는 피조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에 말씀드린, 왜 삼층천 천사들조차 3등급 지혜부터라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천국 안에 있는, 천국 안에서 천사들이 지각하는 주님의 신성은 세 천국에 따라 순서대로 3, 4 및 5등급으로 낮아진 신성이며, 그래서 '주님의 신성 그 자체는 천국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을 크게 초월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각 피조물의 역량에 맞춰 주님의 진리를 좀 낮추셔야 그들이 주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선이 왜 불에 상응하는가 하는 이유이며, 이런 연유로 불의 영적인 의미는 사랑입니다. 신앙의 선은 빛과 상응하며, 그래서

빛의 영적 의미는 신앙입니다.⁸⁸

※ 88. 말씀에서 '불'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사랑을 상징 (A.C.934, 4906, 5215) 거룩한, 즉 하늘의 불은 신적 사랑을 상징 (AC.934, 6314, 6832) 지옥 불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그리고 그런 사랑에 속한 모든 정욕을 상징 (AC.1861, 5071, 6314, 6832, 7575, 10747) 사랑은 생명의 불이며, 생명 그 자체는 백프로 사랑에서 옴 (AC.4906, 5071, 6032, 6314) '빛'은 신앙의 진리를 상징 (AC.3195, 3485, 3636, 3643, 3993, 4302, 4413, 4415, 9548, 9684)

그리고 주님은 눈들 앞에 나타나시는데요, 그 이유는 마음에 속한 내면들(*the interiors*)은 눈들을 통해서 보는데, 사랑의 선으로부터는 오른눈을 통해서, 신앙의 선으로부터는 왼눈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⁸⁹

※ 89. 왼눈의 시야는 신앙의 진리들과, 오른눈의 시야는 그들의 선들과 상응 (AC.4410, 6923)

천사들한테는, 그리고 또한 사람들한테도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모두 진리가 비롯되는 선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모두 그 선으로 말미암는

‘천국의 해(The Sun in Heaven)’

진리에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상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어지는 구절들처럼 말입니다.

※ 90. 사람의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진리가 비롯되는 선에, 그리고 그의 왼쪽에 있는 것들은 그 선에서 나오는 진리들에 관계 (AC.9495, 9604)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달의 빛과 같으리라 (사30:26)

신앙의 선은 그 본질상 선에서 나오는 진리입니다.

⁷내가 너를 볼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여 ⁸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32:7-8)

※ 사랑, 신앙, 선, 진리 등 이런 추상 개념들이 자연계 안에서 육체적인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선뜻 와닿지가 않는 내적 주제들이지만, 내적 세계인 영계에서는 저런 추상적 개념들, 내적 주제들이 생생하게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연계에서 두 눈으로 사물을 보듯 말이지요. 그래서 스페덴보리는 저렇게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사13:10)

119

이것이 왜 말씀에서 주님을 사랑과 관련해서는 해와 같다, 신앙과 관련해서는 달과 같다 하는가 하는 것이며, 또 ‘해’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님 사랑(*love from the Lord to the Lord*)을, ‘달’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님 신앙(*faith from the Lord in the Lord*)을

²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질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¹⁰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³¹누구든지 여호와의

사30:26, HH.116-125
'천국의 해(*The Sun in Heaven*)'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
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
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욘2:2, 10, 31)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
을 거두도다 (욘3:15)

¹²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
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 ¹³하늘의 별들
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계6:12-13)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
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24:29)

이밖에도 많이 있지요. 위 구절들에
서 '해'는 사랑을, '달'은 신앙을, '별
들'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상징합니다.⁹¹

※ 91. 말씀에서 '별들'과 '별자리들'
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상징
함 (AC.2495, 2849, 4697)

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들을 일컬어 어두워진다, 그 빛을
잃는다,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있
습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해로 보이
신다는 사실은 베드로, 야고보와 요
한 앞에서 변형되셨을 때의 주님 모
습에서 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17:2)

이들 제자들은 몸에서 벗어나 천국
빛 안에 있을 그때에 주님을 뵈었습
니다. 고대인(古代, *the ancient peo
ple*)들, 표상교회(表象, *a representa
tive church*)가 이들과 함께했는데,
이들 고대인들이 신성한 예배를 드
리는 중에 얼굴을 동쪽에 있는 해를
향했던 것도 바로 이 상응 때문이
며, 같은 이유로 그들은 그들의 성
전 또한 동향(東向, *an eastern asp
ect*)으로 지었습니다.

120 신적 사랑이 얼마나 어
마어마하며, 도대체 그게
어떤 건지는 이 세상 해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세상 해가
가장 뜨거울 때보다 훨씬 훨씬 더
뜨거운데 이게 믿어지시나요? 그래
서 해로서의 주님은 중간에 뭐가 없

‘천국의 해(*The Sun in Heaven*)’

이 천국들 안으로 직접 유입하시지는 않으시고, 대신 그 사랑의 열기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방식으로 하십니다. 이들 열기 조절과정이 해 주위 복사 띠로 나타납니다. 거기다 천사들은 이 입류(入流, *the influx*)에 의해 상하지 않도록 얇은 구름으로 베일처럼 옷입혀줍니다.⁹²

※ 92. 주님의 신적 사랑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는 이 세상 해의 불과 비교하면 분명히 설명됨 (AC.6834, 6849, 8644) 주님의 신적 사랑은 인류 전체를 향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 (AC.1820, 1865, 2253, 6872) 주님의 사랑의 불에서 처음 발하는(發, *goes forth*) 사랑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신 해 주위 복사 띠처럼 보임 (AC.7270) 천사들은 얇은 구름의 베일로 옷입혀지는데 그 이유는 불타는 사랑의 입류로 상하지 않게 위해서 (AC.6849)

이런 이유로 천국들은 수용 역량에 따라 더 가깝든지 덜 가깝든지 합니다. 더 높은 천국들은 사랑의 선 안에 있기 때문에 해로 계신 주님과 가장 가깝게 있습니다. 좀 더 낮은 천국들은 신앙의 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훨씬 더 떨어져 있습니다. 한편, 지옥에 있는 자들처럼 전

혀 선이 없는 자들은 가장 멀리, 그들이 선과 반대되는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⁹³

※ 93. 천사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임재, *The Lord's presence*)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과 신앙의 선에 대한 그들의 수용 역량 만큼 (AC.904, 4198, 4320, 6280, 6832, 7042, 8819, 9680, 9682, 9683, 10106, 10811) 주님은 각자에게 그의 어떠함 만큼만 나타나심 (AC.1861, 3235, 4198, 4206) 지옥들은 천국들과 꽤 먼 거리에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주님의 신성 사랑의 임재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 (AC.4299, 7519, 7738, 7989, 8137, 8265, 9327) 이런 이유로 지옥들은 천국들과 아주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큰 구렁텅이’(눅16:26)임 (AC.9346, 10187)

121 하지만 주님이 천국에 나타나실 때가 종종 있으신데요, 주님은 해를 입으신(*encompassed with a sun*) 모습이 아닌, 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분의 얼굴에서 나오는, 얼굴을 통한 신적 광채(*the Divine shining*)로 인해 다른 천사들과고는 구분되게 나타나시는데요, 그 이유는 주님은 그곳에

‘천국의 해(*The Sun in Heaven*)’

몸소 친히 계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실은 친히 늘 해를 옷 입고 계신 상태이시기 때문인데, 그래서 대신 주님은 바라봄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십니다(*he is present by look*).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시선을 고정, 머무르고 있으면 비록 그들이 실제로는 까마득히 먼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타남을 내적 시야의 나타남(*the presence of internal sight*)이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높이, 해보다는 조금 아래, 해를 벗어나(*out of the sun*) 천사의 모습으로 계신 주님을 뵈는 적이 있으며, 또 광채나는 얼굴의 천사 모습을 하신 주님을 가까이서, 그리고 한번은 불꽃같은 빛으로 천사들 가운데 계신 주님을 뵈는 적도 있습니다.

122

천사들한테는 이 세상 해는 천국 해와 반대로 짙은 흑암으로 보이며, 달도 천국 달과 반대로 어둡으로 보입니다. 이는 늘 그렇습니다. 세상 화염은 자기 사랑에 상응하고, 거기서 나오는 빛은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짓된 것과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

은 신적 사랑에 정면으로 반대되며,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짓된 것은 신적 진리에 정면으로 반대되기 때문이며, 신적 사랑과 신적 진리의 반대가 천사들한테는 짙은 흑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 세상 해와 달을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자아 사랑과 그 사랑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거짓들을 상징하며,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 끊어버려야 할(*would be cut off*) 것이라 합니다.(신4:19; 16:3-5; 렘8:1, 2; 겔8:15, 16, 18; 계16:8; 마13:6).⁹⁴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신4:19)

³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⁴그 이레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천국의 해(The Sun in Heaven)’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⁵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신16:3-5)

¹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²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못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렘 8:1-2)

¹⁵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¹⁶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¹⁸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갇아 붙잡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핍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겔8:15-16, 18)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계16:8)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13:6)

※ 94. 이 세상 해는 천사들한테는 전혀 보이지 않고 대신 그 자리에는 천국의 해, 곧 주님과 반대되는 빛이 그 뒤 어둠이 있음 (AC.7078, 9755) 반대로는 ‘해’는 자기 사랑을 상징 (AC.2441) 그리고 이런 의미로 ‘해를 경배함’은 천국적 사랑, 곧 주님 사랑에 (*to heavenly love or to the Lord*) 반대되는 것을 상징 (AC.2441, 10584)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해는 짙은 어둠 (AC.2441)

123 주님 안에 있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신적 사랑, 주님이 천국에서 해처럼 나타나시는 것 역시 바로 이 신적 사랑 때문이며, 그래서 천국들 안에 있는 모두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립니다. 천적 나라 천사들은 해로 계신 주님을 향해, 영적 나라 천사들은 달로 계신 주님을 향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영들은 정반대인 어둠과 흑암을 향해, 즉

사30:26, HH.116-125

‘천국의 해(*The Sun in Heaven*)’

주님을 등지고 돌아섭니다. 그 이유는 지옥에 있는 모두는 자기와 세상 사랑 가운데(*in love of self and the world*) 있고, 그래서 주님하고는 적대적이기(*antagonistic to the Lord*) 때문입니다.

이 세상 해 있는 곳 흑암을 향하는 영들은 지옥들 뒤편에 있으며, 악마들(*genii*)이라고 합니다. 반면, 이 세상 달 있는 곳 어둠을 향하는 영들은 훨씬 앞쪽 지옥들에 있으며, 악령들(*spirits*)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지옥들 가운데 있는 영들을 어둠 안에 있다 하고, 천국들 가운데 있는 천사들을 빛 안에 있다 하는지 하는 이유입니다. ‘어둠’(*darkness*)은 악에서 나오는 거짓을, ‘빛’(*light*)은 선에서 나오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방향을 돌리는 이유는, 사후 영계에서는 모두가 자기 내면을 지배하는 것, 즉 자신들의 사랑을 바라보기 때문이며, 천사들, 영들의 내면이 그들의 얼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계에서는 방위라는 것이 자연계에서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얼굴에 의해, 즉 얼굴을 돌리는 데 따라 방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 영에 있어서는 영들이 하듯 같은 식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즉 그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가운데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만일 그가 주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람은 해의 출몰(出沒)에 따라 방위가 정해지는 자연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므로 뒤에 천국의 방위들, 공간 및 시간을 다루는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24 주님이 천국의 해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은 또한 모든 것의 중심(*the common center*), 모든 방향과 결정의 근원이십니다.⁹⁵

※ 95. 주님은 온 천국이 늘 몸을 돌려 향하는 모두의 중심(*the common center*)이심 (AC.3633, 3641)

그래서 그 아래 있는 모든 것 역시 천국에서든 지상에서든 그분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보호, 원조, 지원 아래 있습니다.

125 이 모든 사실들, 곧 주님에 관하여 앞의 여러 장들을 통해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보

‘천국의 해(The Sun in Heaven)’

여드린 사실들이 훨씬 더 빛 가운데 환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이 천국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AC. 2-6), 천국을 만드는 것은 주님의 신성이라는 것 (AC.7-12), 천국 주님의 신성은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 (AC.13-19), 이 세상 만물과 천국 간, 그리고 천국을 통해서 주님과 어떤 상응이 있다는 것 (AC.87-115), 또 이 세상 해와 달은 상응들이라는 것 (AC.105) 등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의 해와 달은 상응을 통해 천국에도 해와 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지상의 해를 통해 지상 만물이 열과 빛을 받듯 천국 역시 천국의 해를 통해 천국의 열과 빛을 받습니다. 천국의 해는 주님이십니다. 천국 해의 열은 신적 선이요, 천국 빛은 그 선에서 나오는 신적 진리입니다. 이 둘은 신적 사랑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은 천국의 해이지만 해 자체가 아니라 해를 옷처럼 입으신 상태이십니다. 주님은 천국보다 크셔서 천국 안에 계시지 않고, 천국을 벗어나 계십니다. 주님 사랑의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해로, 이웃 사랑의 사람들한테는 주

님이 달로 보이시며, 이는 또한 오른눈, 왼눈이 보는 것과 상응합니다. 이는 또 사랑과 신앙하고도 상응합니다. 즉 사랑, 선, 해, 오른눈이 천적이요, 신앙, 진리, 달, 왼눈이 영적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역량 만큼만 보이시며 나타나십니다. 안 그러면 그들에게 화(禍)가 닥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이 해이신 주님을 보면 오히려 짙은 흑암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대로 천국 천사들이 지상 해를 볼 때도 그렇게 보입니다. 주님은 천국 모든 것의 중심이시며, 그래서 천국은 물론, 지상 만물을 늘 붙드시며, 돌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록 아직 지상에 머물고 있으나 천국 천사들처럼 늘 천국 해이신 주님을 마치 해바라기처럼 바라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사30:26)

2022-11-06(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